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태풍 ‘힌남노’ 접근 대비 행정력 집중 피해 최소화”

김관영 도지사, 전주 진북동 어은·도토리골 일원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장 지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제11호 태풍인 ‘힌남노’가 한반도에 접근함에 따라 민간의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관영 도지사는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근접에 따라 침수우려지역인 전주시 진북동 어은·도토리골 일원을 방문해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등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4일 선제적인 피해 예방 대응과 부지사 실국장과 함께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이은 태풍대비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5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위치한 어은지구를 방문해 태풍 힌남노 대비를 위한 현장 행정에 나서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 지사가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어은·도토리골 일원은 집중 호우 시 전수전 수위 상승으로 홍수위보다 낮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현재 580가구 1,500명이 거주하고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보호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5억 원(국82.5, 도33, 시49.5)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고 배수로 1.06km를 신설해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번 태풍은 2003년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매미’보다 강력하고 남부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도시군·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말했다.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사전에 대비해 도내에 단 한 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 초집중에 태풍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토리골 급경사지 정비지역은 재해 위험도 평가 결과 D등급으로 반지하·지하 형태 주택이 밀집돼 집중 호우 시 붕괴와 침수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2021년 사업비 82억9200만원을 투입하는 공사에 착공해 2023년 완공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9.4(일) 5시부터 14개 시군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도 관련 부서 및 14개 시군 유관 부서에 함께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태풍 진행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비상 2단계 발령 등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32세대 주민 전원을 이주해 주민들의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비탈면 낙석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

또한 마을방수, 긴급 재난문자를 활용해 도민에게 국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태풍 이동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신속하게 전파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작품 선정... 내년 8월 착공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설계 공모’에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의 작품이 선정됐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3개 작품이 출품됐다. 이 중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대표 이길환)에서 응모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비주와 한지를 형상화해 서예비엔날레관의 상징성을 잘 드러내는 점, 관람자 편의와 보차단리 등

을 고려한 동선계획이 우수한 점, 대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 옥외정원 동선을 입체적으로 구성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입상작(2등)에는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 입상작(3등)에는 (주)건축사사무소이상건축과 임용민 교



수(전주대학교)가 공동 응모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801.2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3년 8월 공사 착공, 2025년 4월 공사 준공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5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48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 경연에서 판소리 적벽가 중 조자룡 할 쏘는 대목을 열창한 박현영씨가 장원을 차지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박현영씨, 판소리명창부 ‘장원’

무용명인 박진희씨 · 농악 오산외미결립농악보존회
민요 이소정씨 · 궁도 이형춘씨 등 부문별 장원자 배출
학생대회서 판소리 정세하 · 현악부 최세론 등 장원

국악분야 최고 등용문인 ‘제48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박현영씨(33·전주시)가 영예의 판소리명창부 장원을 차지했다.
전주시는 5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48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 경연에서 판소리 적벽가 중 조자룡 할 쏘는 대목을 열창한 박현영씨가 장원을 차지해 대통령상과 함께 국악계 최고 상금인 7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가 배출했다.
부문별 장원자는 △무용명인부 한진희(국회의장상) △농악부 오산외미결립농악보존회(국무총리상) △민요부 이소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가야금명창부 이정애(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궁도부 이형춘(전라북도지사상) △무용일반부 박현준(전주시장상) △판소리일반부 정진성(전주시장상) △기악부 김소리(문화방송사장상) △시조부 임환(문화방송사장상) 등이다.

판소리명창부 장원에게 주어진 상금은 국악계 최고 대회의 위상에 맞춰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났다.

지난 4일 진행된 학생대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판소리부 정세하 관악부 박혜술, 현악부 최세론 무용부 김재원 △전라북도지사상 민요부 강산 가야금명창부 신수린 △대사문화재단이사장상 농악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장원으로 선정됐다.
/김재훈 기자

이날 전주MBC로 생중계된 본선대회에서는 판소리명창부 대상인 박현영 씨를 포함해 각 부문별 장원

제48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39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는 지난달 21일 궁도부 대회를 시작으로 이날 본선대회까지 총 16일간 국립무형유산원을 비롯해 전주대사습놀이, 전주향교, 천양정, 전주시청 강당 등에서 분산 개최됐다.

전국대회에서는 △외국인 공연자들의 국악 축하공연 △젊은 장원자들과 국악계 명인·명창, 그리고 전주대사습놀이 역대 장원들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선을 보였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올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위축되었던 전통공연 부흥의 시작을 알리고자 풍부하고 다채로운 축하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국악계의 큰 기동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

의회

익산시의회

시민을 사랑합니다!
오직 시민의 편에 서는 익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council.iksan.go.kr